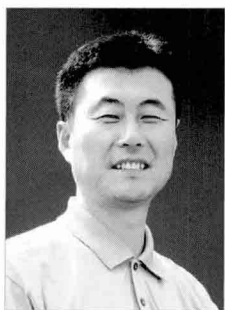


# 원종계(GPS) 쿼터제와 육계산업 안정화



이상배 이사  
(주)삼화육종

양계업계 선구자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육계산업의 시작은 원종계”라고 귀가 아프도록 일러왔다. 적정수수 유지가 최대 관건으로 회자된 셈이다.

우리 원종계 업계는 늘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듯 싶은데 뜻을 쉽게 이해되지만 뜻을 행하기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육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2004년 3월

23일 원종계 3사 대표자들이 적정수수(자율쿼터제) 수입 합의서에 날인한 이후 최소한 약 2년여의 양계산업은 불황의 늪을 벗어나 그런대로 양호한 경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단지 원종계 쿼터제 시행으로 인한 종계의 생산수수 감소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나고 난 지금에 와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쿼터제 시행 이후 가격이 회복되자 경기가 다시 과잉으로 변하여 원종계 3사가 합의한 쿼터제는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2002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생산과잉이 다시 되풀이 되다가 불황의 끝자락에서 설상가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여 소비감소와 더불어 공급과잉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었다.

금년 육계업계는 과잉생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입는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인상되었고, 유가 및 환율마저 강세로 돌아서 육계업계가 느끼는 어려움은 2003년도 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다 육계업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계획에 의거 엄청난 투자 이후에 돌아온 것은 과잉생산에 의한 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미 일부 업체는 도산하여 사업을 접어야만 했고, 살아남은 업체들도 자력으로 회복의 길이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육계산업의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이라는 긴

급 수혈까지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과잉생산의 후유증을 거듭 실감하게 된다.

혹자는 금년 말이면 닭고기의 kg당 생산 원가가 2,000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측까지 하고 있다. 원가가 상승하면 공급자는 제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원가상승분이 적정하게 소비자에게 반영되어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존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상승한 원가를 소비자에게 반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일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업체 간 경쟁의 어려움과 더불어 가격상승 기대에 힘입어 수입산 닭고기도 상당한 증가세에 있어 혼전양상을 띠고 있다.

닭고기 원가 상승 요인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생산마저 과잉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육계업계가 입어야 할 피해가 엄청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종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사)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여 원종계 4사 실무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대책(적정수수 도입)을 협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진 바 있다.

다행히도 종계의 적정 보유에 대해서 각사의 입장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현재의 상태가 과잉이라는 원칙에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원가상승이 육계산업의 형태를 바꾸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종계든 원종계든 적정수수 유지를 위해서는 심한 고통과 갈등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남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고 나만 좋은 결과를 취하려 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생산 조절이란 종사자가 많아 이해당사자가 넓어질수록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용계보다는 종계가, 종계보다는 원종계가 더 접근하기 쉽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 원종계 단계에서 적정 수수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강제성을 띤 원종계 쿼터제 도입을 다시금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원종계 농장은 종계장에 종계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모두가 도산한 이후 고객 없는 사업이란 있을 수 없는 평범한 진리의 차원에서 검토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닭 값 인상은 불가피해지고 수입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산업이 바뀌어가는 숨 가쁜 소용돌이 속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육계산업을 안정시켜야 하는 의무자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한다.

육계업계의 시작에 원종계업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어려움을 매일수록 단합하여 다시 한번 원종계자율쿼터제가 시행되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